

가짜 한우고기, 현장에서 가려낸다

- 과제명 : 한우 판별 이동형 진단시스템 개발
- 팀 당 : 동물유전체과 윤두환 031-290-1603

우리 기술로 한우고기 여부를 알아낸다

최근 급격히 줄기는 했지만,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일이 있다.

기존 기기로 한우고기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 후 확인까지 3일이 걸렸다. 우리 원에서는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. 한우의 DNA 마커를 이용한 진단시스템으로, 3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.

우리 원에서 개발된 한우 판별 이동형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한우고기 판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장비의 활용법 등을 단속기관 등에 이전하고 있으며,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또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장비 및 시약들을 대체함으로써 '우리 쇠고기를 우리 기술로 확인한다'는 의미의 검사주권의 확립도 가능한 것이다.



우리 원에서 개발된 한우 판별 이동형 진단시스템은 한우의 DNA 마커를 이용한 진단시스템으로, 3시간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.